

등록금 年 150만원으로 학사 취득 언택트시대 '사이버대학' 급부상

(본인 부담)



등록금 저렴하고 장학 혜택 다양
온라인 교육시스템, 노하우 풍부
내달 1일부터 신·편입생 모집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부추겼다.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교육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학의 캠퍼스 밖에 있다".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30여 년 전 예측했던 '미래대학'의 모습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교육 트렌드로 떠오른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들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지난 20여년 간 쌓아온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2010년 고등교육법에 적용,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며 그 역할과 입지를 넓혀왔다. 사이버대학의 입학생 수는 지난 2002년 9920명에서 2021년(입학 정원 기준) 4만 2751명으로

주요 사이버대학 입시 일정·모집인원 *가나다순

대학명	원서접수·서류제출	합격자발표	모집인원		
			1학년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경희사이버대	1차: 2020.12.1(화)~2021.1.12(화)	2021.1.18(월)	1,600명	437명	1,400명(별도) 676명(일반)
	2차: 2021.1.22(금)~2021.2.16(화)	2021.2.22(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1차: 2020.12.1(화)~2021.1.15(금)	2021.1.21(목)	850명	246명	140명(별도) 285명(일반)
	2차: 2021.1.28(목)~2021.2.16(화)	2021.2.22(월)			
사이버한국외국어대	1차: 2020.12.1(화)~2021.1.14(목)	2021.1.21(목)	720명	80명	880명(별도) 74명 (일반)
	2차: 2021.2.1(월)~2021.2.16(화)	2021.2.23(화)			
원광디지털대	1차: 2020.12.1(화)~2021.1.12(화)	2021.1.19(화)	855명	89명	645명(별도) 42명(일반)
	2차: 2021.1.26(화)~2021.2.16(화)	2021.2.22(월)			
한양사이버대	정시: 2020.12.1(화)~2021.1.12(화)	2021.1.18(월)	2,000명	237명	1,240명(별도) 336명(일반)
	추가: 2021.1.22(금)~2021.2.16(화)	2021.2.22(월)			

급증했다. 전국 사이버대학을 거쳐 간 동문까지 합하면 약 32만여명 이른다.

사이버대학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입학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재교육·평생교육을 선도하던 사이버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이버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U턴 입학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최근 고교 졸업생의 입학도 증가 추세다. 2019년 기준 10대 입학생은 4.

7%로 ▲20대 초 약 18% ▲20대 후반 약 16% ▲30대 약 19% ▲40대 약 24%, 50대 이상이 약 18%다.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혜택은 매력력을 더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간 평균 등록금은 270만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이 평균 100만~110만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 150만원 내외면 대학수업을

들 수 있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수혜할 수 있어 누구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학사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들은 12월 1일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일제히 시작한다. 사이버대학별로 1차와 2차로 구분해 모집한다. ▲경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사이버한국외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 21개 사이버대학에서 4만 2751명을 뽑는다. (표: 2021학년도 주요 사이버대학 입시 일정 참고)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사이버대는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시스템, 온라인 논문지도 시스템, 이공계 학과 온라인 실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개발·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사이버대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취업 후진학, 평생 고등교육체제 요구 증가, 전문성 향상과 경력개발 교육, 성인 학습자 재교육과 직무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공공안전관리전공' 軍 핵심인재 양성... 직업 군인에 딱!



직업군인 일·학습 병행에 안성맞춤
이론·실무 융합해 교육과정 최적화
내년 1월12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12월 1일부터 올해 신설된 청소년·가족전공 및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재난방재과학 및 공공안전관리전공 등 36개 학과(전공)에서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www.khcu.ac.kr/ipsi/) 통해 내년 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모집 학과(전공)는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 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휴머니티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경희사이버대 서울 캠퍼스 전경.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다.

대학원은 오는 12월 4일까지 2021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전공 ▲관광레저항공MBA전공과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시민주도십·거버넌스전공에서 진행된다.

◆'인류 안전 지킴이' 재난방재과학 공공안전관리전공은 직업 군인이 학업을 병행하기 최적화된 전공이다.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겸비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

춘군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 창업, 창직 등 전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군 전역 후 성공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조직과 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 능력을 갖춘 리더 양성과 군복무 후에도 관련 산업체 및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중견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방재과학전공은 태풍·지진·화재·산업재해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소방·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화공·전기·가스·위험물 안전 및 작업 환경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안전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운다.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두 분야의 통합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실무형 전문기를 양성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온라인 직무교육 등 대학의 다양한 사회 책무 수행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5년 도부터 경희 프로그램 'Engagement 21'을 통해 대학교육 기회의 문턱 낮춰 다양한 계층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해왔다. 한국혈우재단,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등과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Engagement 21' 일환으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63 개소(16개 시·도 광역지원기관 및 647개 개소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약 1300여명과 생활지원사 약 1만 8700명, 간호직 공무원 약 1000여명에게 온라인 직무교육을 송출하며 대학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